

“아토피여 안녕~” 그린스쿨의 기적



도서관에 마련된 황토방에서 3학년 학생들이 책을 읽고 있다.

13일 오전 광주시 북구 효령동 지산초등학교 북분교장, 학생수 44명의 미니 학교가 손꼽히며 분주했다. 인근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 학부모 등 100여명이 '자연생태체험학교 설명회'에 참가하기 위해 학교를 찾았기 때문이다.

숲서 노닐고 황토방서 공부하고...

지난 2005년 전교생 숫자가 32명으로 줄면서 북초등학교에서 지산초 북분교장으로 전락한 이곳에 그동안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올해 학생수는 57명으로 늘어날 예정이고, 이 중 신입생이 17명에 달한다. 현재 2학년이

■ '친환경 배움터' 광주 북구 지산초등학교 북분교장 가보니

10명, 1학년은 12명으로 저학년으로 갈수록 학생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주변에 보이는 것이라곤 논 밖에 없는 지산초 북분교장으로 도시권 학부모의 관심이 쏠린 것은 아이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아토피 질환 때문. 박병덕 교장은 “폐교 직전까지 갔던 곳인데 아토피 질환을 앓던 애들이 효과를 봤다는 소문이 학부모 사이에 퍼져 이전 교감 선생남도 한 분 필요하게 됐다”며 “전교생의 40%는 아토피 질환을 앓거나, 형제 중 아토피를 가진 애들이 있는 학생”이라고 설명했다.

“아토피 치료에 효험” 입소문

학교 측은 지난해 동부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친환경 재료를 사용한 교실 2개 크기의 도서관, 11m(3.5평) 규모의 황토방 등을 마련했다. 전체적으로 시멘트 바닥이 없는 것은 물론, 교문에서 학교 건물까지 가는 길은 가로수가 도열해있고 소나무 숲, 들꽃 트랙 정자, 텃밭으로 꾸며져 인공적인 요소는 찾아보기 힘들다. 첨단지구에 살다가 아토피가 심한 아이들 때문에 북분교장 인근에 아예 황토집을 지어 이사 온 학부모 박현정(39·광주시 북구 수곡동)씨는 “아이를 때문에 학교 근처 한적한 곳으로 왔는데 살아가수록 우리 부부가 더 만족스러워 한다”며 “도심권 아이들에 비해 학습 능

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얻는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3학년 담임 노영숙 교사는 “사실 도서관이나 황토방보다는 학교 주변의 자연 환경 그 자체가 아이들에게 '친환경 놀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안전한 시골이 아니라 도시생활과 괴리되지 않는 점도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 같다”고 말했다. 올해 말 신입생으로 입학시킨 학부모 허점숙(여·36)씨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공부만 강요하는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 학교를 선택했다”며 “아이가 자연을 온전히 느끼는 일은 도시 학교에서는 체험하기 힘들 뿐 아니라 부모도 가르쳐주기 어려운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최근 3년 전교생 32명서 57명으로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교사-학생, 학생-학생 간 밀도가 높은 점도 장점이다. 아토피 질환 때문에 지난해 3월 일곡지구에서 전학 온 이주아(10·3학년)양은 “반 아이들과 더 친해지고, 모르는 것은 선생님께서 아무 때나 질문할 수 있어 좋다”며 “팔뚝에 아토피 흉터가 크게 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시 북구 효령동 지산초등학교 북분교장에 조성된 소나무 숲에서 3학년 학생들이 뛰어놀고 있다.



다 좋은 건데...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

▶ 서울본사 : 02) 3445-0943
▶ 광주본점 : 06) 337-0571

광주진돌맹비뇨기과

www.jindol.com

발기불능수술

약물복용, 주사요법, 연필수술

상담전화 (062)233-5119

바다에 폐유 몰래 버린
부산선적 예인선 적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바다에 폐유를 몰래 버린 부산선적 43t 예인선 S호를 붙잡았다”고 15일 밝혔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이 선박은 지난 10일 오후 3시 20분께 목포 북항 서방파제 부근에 정박 중 기관실에 설치된 비상 펌프를 오작동 시키는 방법으로 폐유 60L를 바다로 유출한 혐의다.

해경 관계자는 “이 선박이 폐유를 버리고 부산항으로 돌아왔으나 항만 관계실의 선박 이동 현황을 파악하고 사고 현장에서 기름을 채취해 3일간의 추적 조사 끝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목포=이상희기자 lsh@kwangju.co.kr

강명희 씨 광주일보사장상 이효찬 군 광주시교육감상

빛고을독서마라톤대회 시상식

광주일보가 광주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회 빛고을독서마라톤대회’ 시상식이 15일 오전 시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무한도전' 분야에 도전한 강명희(일반)씨가 광주일보 사장상을 받았고, 이효찬(학생)군은 광주시교육감상을 수상했다. 윤호준군 등 12명은 개인 5km 부문, 손유진양 등 12명은 개인 10km 부문에서 금·은·동상을 각각 수상했다. 4만2천195쪽을 읽어야 하는 풀코스 가족 부문에서는 '김씨네 가족'(김광현씨 가족)이 우승을 차지했고, 2만1천97쪽의 하프 코스는

'도란도란'(정만기씨 가족)팀이 우승 트로피를 쟁겼다. 풀코스 단체 부문은 '아자 아자 똥강아지들'(광주서산초 허정민군 등 5명), 하프 코스에서는 '까치회'(광주비야초 김요민군 등 4명)가 각각 우승했다. 가장 많은 수의 학생들이 참가하고 완주한 경양초(728명 참가, 328명 완주), 송광중(710명 참가 167명 완주), 대광여고(453명 참가 72명 완주) 등은 학교 부문 특별상을 받았고, ▲가족 풀 코스 '원종이네'(서재석씨 가족) ▲가족 하프 코스 '태연이의 도서관' ▲단체 풀 코스 '광림 빛의 소리'(광림초 강미순양 등 5명) ▲단체 하프 코스 '소녀 in DK'(대광여고 형지원양 등 5명) 등도 특별상을 수상했다. '빛고을독서마라톤대회'는 광주일보가 책



광주일보가 책 읽는 풍토 조성을 위해 광주시교육청과 공동으로 펼치고 있는 범시민 독서운동인 '제1회 빛고을독서마라톤대회' 시상식이 15일 오전 시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읽는 풍토 조성을 위해 광주시교육청과 공동으로 벌이는 범시민 독서운동으로,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경기를 독서에 접목한 것. 참가자가 읽은 책 1쪽을 1m로 환산해 부문별 완주 여부로 입상자를 가린다. 이번 1회 대회에는 8천718명(학생 7천807명·일반 911명)이 참가해 1천547명(학생 1천305명·일반 242명)이 완주했으며, 지난해 9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 열렸다. 올해 대회는 4~6월과 9~12월 두 차례 열릴 예정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승례문 방화 현장 검증 방화 피의자 채씨 “복원하면되지” 뻘뻘

승례문 방화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이 15일 오전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서 진행됐다. 방화 피의자 채모(70)씨는 이날 오전 8시37분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과 함께 서울 중구 남대문4가 승례문에 도착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 감정을 고려해 전·의경 100여명을 곳곳에 배치,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회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씨는 억울한 게 무엇이나는 질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전 날 영장실질심사 때 마찬가지로 자신의 토지보상 문제 등을 원하는 대로 해결해주지 않은 정부 당국을 상대로 했다. 승례문 경내로 들어선 채씨는 “기분이 안 좋다. 순간적인 감정만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다. 나 하나 때문에 없애버려졌으니”라면서도 “그래도 인명피해를 없었다. 문화재는 복원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채씨는 승례문 위에 올라가 직전까지도 “임금이 국민을 버리는데... 약자를 배려하는 게 대통령 아니냐. 진린 관계를 극구 부인하고, 김씨가 두 사람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면서도 두 체적 정황은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미뤄 오해로 인한 범행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과 관련, 그동안 김씨는 “불륜 때문에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씨의 아내와 최씨의 유족은 ‘지나친 의심’이라고 맞서 논란이 됐었다.

승례문 대표 도메인 미국 기업이 소유

방화로 불탄 '국보 1호' 승례문(sungnyemun)의 정식 영문 표기로 구성된 도메인인 'sungnyemun.com'을 미국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도메인 등록업체 아사달(www.asadal.com)에 따르면 미국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proxy.Inc'라는 기업체가 승례문의 대표 도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sungnyemun.com'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불과 1개월 보름 전인 작년 12월28일 이 도메인을 2년 간 계약했다.

/연합뉴스

광주YWCA, 성빈 여자 직원들 복직 거부

아동학대 논란으로 생활지도원을 집단해고했던 광주 아동복지시설 '성빈여자'와 광주YWCA는 최근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전(前) 생활지도원 10명중 4명에 대한 복직 결정을 전면 거부하고 재심을 요청하기로 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산불조심 하세요

구름 많고 서해안에서는 한때 눈이 오는 곳도 있었다.

2월 16일 (음 1월 10일) 날씨

광주	구름 많음	-4~3℃
목포	구름 많고 한때 눈	-3~3℃
여수	구름 조금	-3~5℃
안동	구름 많음	-3~4℃
대구	구름 조금	-6~4℃
대전	구름 많음	-6~4℃
충청	구름 많음	-6~5℃
경북	구름 조금	-6~6℃
충남	구름 맑음	-7~4℃
전남	구름 많고 한때 눈	-6~2℃
전북	구름 많고 한때 눈	-4~4℃
전주	구름 맑음	-7~3℃
남원	구름 맑음	-10~4℃
춘천	구름 맑음	0~3℃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1.5m
남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목포 밀물 < 09:56 썰물 > 02:06
여수 밀물 < 21:54 썰물 > 15:54
여수 밀물 < 05:26 썰물 > 12:08

▲해돋이 07:19 ▲해질 18:15 ▲달출 12:53 ▲달입 03:23
◇주간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7(일)	18(월)	19(화)	20(수)	21(목)	22(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3/6	-4/9	-3/8	-3/9	-2/10	-1/8

오해가 '억울한 죽음' 불렀다

광주지검 '독거노인 피살' 범행 동기 수사

불륜인지, 지나친 의심 때문인지 범행 동기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광주 독거노인 피살사건은 오해로 인한 것으로 검찰이 결론을 내렸다. 광주지검 형사 제2부는 15일 아내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교장 출신 6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63)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6일 오전 11시께 광주 북구 문흥동 최모(68)씨의 아파트로 찾아가 둔기로 열

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내 아내와 만나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범행했다”는 김씨의 말에 따라 지난해 8월 이후 최씨의 휴대전화와 집 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등 최씨와 김씨의 아내 박모(60)씨가 실제 불륜관계였는지 조사했으나 두 사람 간에 연락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또 박씨가 “9년 전 친구의

식당에서 일하면서(최씨) 명함을 받았을 뿐 따로 만나지 않았다”며 불륜관계를 극구 부인하고, 김씨가 두 사람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면서도 두 체적 정황은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미뤄 오해로 인한 범행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과 관련, 그동안 김씨는 “불륜 때문에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씨의 아내와 최씨의 유족은 ‘지나친 의심’이라고 맞서 논란이 됐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인터넷 1대1 대화도 제 3자 비방때 명예훼손”

大法 “비밀전제해도 다수에 전파될 수 있어”

인터넷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를 통해 제3자를 비방한 경우에도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허모(53·회사원)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허씨는 2006년 2월12일부터 자

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A라는 여성이 회사 상무로부터 돈을 받는 조건으로 B부장의 사생활을 보고한다는 내용의 소설 ‘꽃뱀’을 게재했다. 허씨는 이 소설에서 A가 블로그 회원인 유모(필명 로000)씨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썼고, 같은해 5월27일 ‘고운’이라는 ID를 쓰는 사람이 일대일 대화를 통해 ‘꽃뱀이 누구냐’고 묻자 “로000이다. 증거가 필요하면 줄 수 있다”고 답했다. 검찰은 정보통신망을 이용, 공

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유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씨를 기소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일대일 비밀대화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충족한다”며 “일대일 비밀대화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 됐다”고 과거 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